

산 소망

베드로전서 1:1-9

요절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그의 크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025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UBF 요절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선택하며, 주제를 “산 소망”으로 정했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힘과 기쁨으로 충만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게 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럴 때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어도,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사탄의 장난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산소보다도 소망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안과 우울증, 심지어 자살 충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력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산 소망을 품게 되면, 우리는 새해에 승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후 63년경,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알려진 곳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시련을 극복하고, 그들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서두에서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임을 상기시키며, 산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1:1-2; 2:9,11).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이는 그의 메시지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1절). 베드로의 말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의 청중은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자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자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장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초기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집을 떠나 외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아야 했습니다(1:17; 2:11). 그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생존을 위해 힘든 일을 하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부딪히며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차별받고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했지만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택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2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얻거나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15:16).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의 은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2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의 부패로부터 구별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2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죄된 욕망은 줄어들고 거룩한 욕망이 자라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희생적으로 변하고, 슬피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용기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평화롭게 변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 평화 안에서 성장하며,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바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소개한 후 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 절).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일상에서 넘치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량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의 사랑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두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그리고 예수님 –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성령의 활동적인 임재,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이 모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저항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항상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이방인처럼, 이상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불신앙을 폭로하며,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릅니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동료들조차 무심하거나 비판적인 말을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의 죄와 약점, 그리고 실수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 도난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벧전 2:9).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공급하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방에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임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둘째, 우리의 산 소망: 영원한 유업 (1:3-5)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임을 상기시킨 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소망은 필수적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독살합니다. 뱀의 독이 피를 오염시키듯, 절망은 죽음으로 이끄는 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탄이 절망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정죄하며 비난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많은 젊은이들이 무가치함을 느끼고,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절실히 어떤 형태의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살아있게 느끼게 하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은퇴한 복서 조지 포어맨은 한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하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은 후, 그는 “무(無)와 절망의 지옥 같은

두려운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기독교 설교자로 시작했고, 나중에 복싱으로 돌아와 45세의 나이에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소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썩어지고, 퇴색합니다. 그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가 그것에 품었던 소망은 실망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한계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진실은 결국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 9:27). 우리의 업적, 소유,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모두 뒤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3 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그의 크신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비로우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돈, 교육, 과학, 기술, 선행-이 중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크신 공훈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빌 1:23). 죽음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영혼은 거룩함에서 완전해지고, 가장 높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의식이 있고, 활동적이며, 행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뵈웁니다.”

D.L. 무디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땅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4 절을 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업을 받습니다. 그 유업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롬 8:17). 베드로는 이 유업을 세상의 유업과 대조합니다. 부모들은 종종 자녀를 위해 유산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유산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넬리우스 밴더빌트(1794-1877)는 철도 사업으로 1억 달러의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이는 약 24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섯 세대 후, 그의 후손 앤더슨 쿠퍼는 “그 거대한 재산은 거의 전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업은 결코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둑맞거나, 망가지거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 유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직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1-4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눈부신 재료로 지어진 크고 거룩한 성입니다. 그곳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새 땅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안전하며,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장소입니다.

이 영원한 집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이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영적인 몸입니다(고전 15:42-44).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신뢰할 때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은 우리의 유업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5 절).

이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은 우리의 영혼에 닮과 같습니다 (히 6:19). 우리는 사탄의 유혹,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와의 갈등,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비극 앞에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우리의 닮이 될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연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해집니다. 이 산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 소망은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걸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후 4:16).

저는 아시아에 사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젤라입니다. 그녀는 불완전한 가정에서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느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 장 2 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나눌 때 학생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는 뇌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수술 때, 그녀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 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뇌 질환에서 회복되어 다시 학생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교수 목사, 가정 교회, 선교사를 일으키셨으며, 이들은 아시아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역동적으로 변하며,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저는 이 산 소망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 나이 든 부모님이 제 동생에게 자신의 생애 마지막 간호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네가 여기 없기 때문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40 년이 넘었고, 그들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솔직히 저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음을 기억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영원히 그의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은 제 영혼을 밝게 비추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 속 모든 문제가 이 산 소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2025 년에 이 산 소망을 제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의 삶의 방식 –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벧전 1:5-9; 13-16; 22-2:3; 2:11-17; 3:15-17; 4:7-13; 5:1-4).

지금까지 베드로는 우리의 기독교 삶에 대한 하늘의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의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I) 고난 중에 기뻐하라 (1:6-9)

과거에 우리는 고난을 해롭고 비참한 것으로 여기며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소망은 제거되고, 우리의 믿음은 정결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성품을 성장시킵니다 (롬 5:3-4).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벧전 4:13).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도록 합시다.

II) 거룩하라 (1:15-16)

베드로전서 1 장 15-16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안에서부터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그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의 질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에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거룩함에서 자라나기를 결단합시다.

III) 서로 깊이 사랑하라 (1:22)

베드로는 “마음으로부터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서 성장할 때,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존중, 신뢰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서로 깊이 사랑합시다.

IV) 순전한 영적 젖을 사모하라 (1:23-2:3)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벧전 2:2-3). 갓난아기들이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V)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나누라 (3:15)

베드로전서 3 장 15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 때, 절망하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돕는 좋은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의미 있는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나눌 준비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라 (벧전 5:1-4).

사도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이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 희생적으로 사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산 소망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의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소망은 그들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의 간증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좋은 목자가 됩시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위대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회의 최하층에 속해 있었고, 멸시와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산 소망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며, 우리의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됩시다.